

TDB 경기동향조사(전국) - 2023년 6월 조사 -

2023년 7월 5일
 주식회사데이코쿠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
<https://www.tdb.co.jp>
 경기동향온라인 <https://www.tdb-di.com>

경기는 5개월 만에 악화, 회복경향 일시정지

~ 인력부족 장기화 및 인플레이가 조금씩 영향을 주나 인바운드 확대는 플러스 요인 ~

(조사대상 2만 7,771사, 유효회답 11,105사, 회답율 40.0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의 포인트

- 2023년 6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4포인트 감소한 45.0으로 5개월 만에 악화되었다. 경기는 길어지는 인력부족 및 인플레이 경향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회복 경향이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. 향후는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며 완만히 회복하며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- 원재료 가격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, 식품 등의 가격상승에 의한 구매 보류 등이 악재가 되어 10개 업계 중 7개 업계, 51개 업종 중 34개 업종에서 악화되었다. 지역별로는 전월까지의 전 지역 개선에서 뒤바뀌어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악화, 2개 지역이 개선, 1개 지역이 보합으로 나타났다. 날씨 요인 및 고물가 등의 영향이 나타난 한편 각 지역에서 개인 소비 관련이 저조한 것도 있어 29개 도부현(都府県)이 악화되었다. 규모별로는 「대기업」「중소기업」「소규모기업」이 6개월 만에 모두 악화되었다.
- 향후 엔저(円安)진행으로 가격 상승분에 대한 가격전가로의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이 들렸다. 기업의 상정 환율은 평균 1달러=127.61엔(2023년 4월 조사 시)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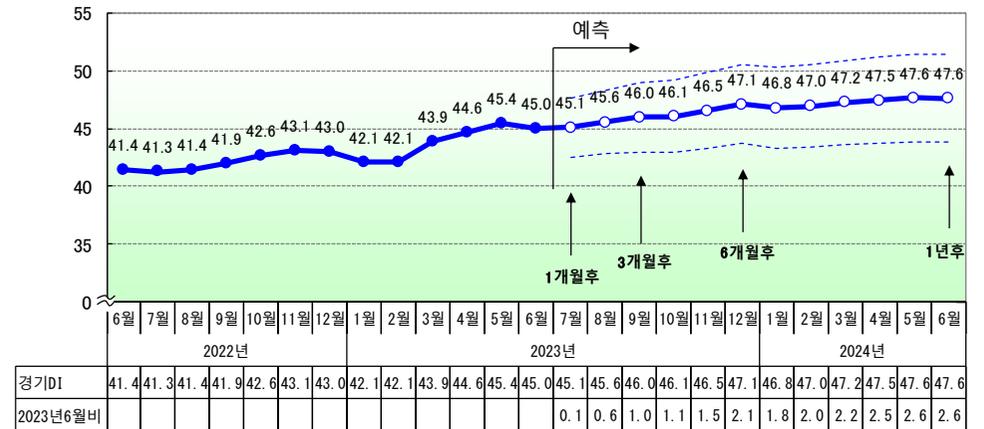
< 2023년 6월의 동향 : 회복경향이 일시정지 >

2023년 6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4포인트 감소한 45.0으로 5개월 만에 악화되었다.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 정상화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하는 가운데 경기는 길어지는 인력부족 및 인플레이 경향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회복 경향이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.

식품 등 생활 필수품의 가격상승 및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이 악재가 되었다. 또한 인플레이에 임금인상 페이스가 따라잡지 못하고 구매 보류의 움직임도 나타나는 등 개인 소비가 저조하였다. 관광산업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책이 일부에서 판매 종료가 된 한편 평년보다도 빨리 장마에 접어드는 등 날씨에 의한 영향도 나타났다. 한편 인바운드 및 인파의 증가,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부터의 회복 소비, 반도체 부족 완화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.

< 향후의 전망 : 완만히 회복경향으로 추이 >

향후의 1년간의 국내경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하여 경제·사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하는 가운데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 악재로 해외경제 감속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은 행방이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된다. 게다가 생활 필수품 및 전기요금 가격 인상, 인력부족, 환율 변동 등도 우려된다. 한편 보너스를 포함하는 임금인상의 확대 및 소비 마인드 개선, 여름 관광 등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. DX 추진 및 탈(脫)탄소화 등의 설비투자는 착실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인플레이 경향은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 향후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며 완만히 회복하며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


*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. 점선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고 있다.